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주민 보상 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 (김도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6
----------	------

발의연월일 : 2023. 2. 9.

발 의 자 : 김도운, 이명녀, 문기호,
문희성, 강혜순, 정재환,
홍영진, 안영호, 박경흠,
김태욱

1. 주 문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앞두고 사업대상지 주민 보상 절차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기업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조속히 보상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가. LH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당초 약속했던 보상절차를 일방적으로 연기함.
- 나. 장현동 일원 지주들은 지난 10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제대로 된 재산권을 행사해 오지 못함.
- 다. 보상절차만 믿고 아예 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들도 상당수 있어 이번 LH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보상지연 결정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 라. 지금이라도 LH가 국가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되새기며 장현산단 사업대상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절차를 나서야 할 것임.

3. 송부대상 :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전국도시군구의회의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4. 촉구문(안) : 붙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주민 보상 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방적으로 연기한 사업대상지 주민 보상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LH는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2022년 10월 감정평가를 거친 뒤 연말까지 사업대상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LH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당초 약속했던 보상절차를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이 때문에 보상일정만 믿었던 장현산단 사업 대상지 300여명의 주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으며 새해 벽두부터 실의에 빠져 있다.

특히 장현산단 예정지 토지 소유 주민 대부분은 딸기와 부추 등을 재배하는 영세농민으로 이미 상당수는 다른 곳에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마저 지급해 둔 농민도 있어 이번 보상지연사태로 인해 계약금만 잃을 처지에 놓인 상황이다.

또한 보상절차만 믿고 아예 농사를 짓지 않은 농민들도 상당수 있어 이번 LH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보상지연 결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 장현동 일원 지주들은 지난 10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제대로 된 재산권조차 행사해 오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공기업 LH가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LH가 국가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되새기며 장현산단 사업대상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절차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21만 구민을 대표하는 중구의회는 LH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조치에 유감의 뜻을 전하며 조속한 주민보상절차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LH는 당초 계획대로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개발을 위한 주민 보상절차에 즉시 나서라.

하나, LH는 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조속히 나서 공기업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이행하라.

하나, 울산시와 중구는 주민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LH와 주민 간 보상 및 피해구제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14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